

온전한 학문을 들고 나와야 구세주

이 세상 사람과 만물을 다 살리는 자가 구세주인고로 영생의 학설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학설을 들고 나오면서 온전한 학설을 들고 나온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하리라.” 등잔불을 켜고 있다가 햇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 등잔불이 필요 있어요? 등잔불이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죠?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죽는지,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걸 모르는 고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운명철학을 한다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가 썩어서 죽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린다든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화를 낸다든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신경질을 낸다든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못마땅한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피가 썩는 것을 이 세상 학문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의사들은 병균이 들어와서 병에 걸리고, 몸이 쇠약해져서 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한의사는 보약을 먹으라고 하고, 양의사는 영양제 첨가된 포도당 주사를 놔 주거나, 병균을 죽이는 주사를 놔 주지만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재발하는 원인을 의학박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생겨

그러나 이 사람은 재발하는 원인을 어떻게 논하느냐 하면 바로 썩은 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사를 맞고 병균이 죽어도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또 발생하므로 재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 박사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학문임에도 이 사람의 말이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사실이 없고, 텔레비전 방송에 한 번도 보도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하여, 이 학문에 대하여 귀증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짜 구세주가 나와서 차원 높은 학문을 논하고 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널리 전파되면 이 마귀세상이 망하는고로 이 말씀이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승리제단을 이단이다, 삼단이다 하면서 무조건 이단의 집단으로 여기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죽는 것은 피가 썩어서, 그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생긴 후, 중병으로 발전하여 죽는 것이므로 병원에 가서 그 병균을 죽여도 썩은 피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썩은 피가 있는 한 또 재발되는 것입니다. 재발된 병균은 주사약에 대한 저항력을 점점 키우면서 자라는고로 병원에 가서 똑같은 주사를 놔 봐야 병균은 죽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피를 썩게 하는 원동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의사들은 전부 사기죄로 형무소로 가야 될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을 사기죄라고 말하는데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



조희성 구세주

병을 고치지 못 했다면 엄밀히 따져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피가 썩어서 병에 걸리고, 피가 썩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가 썩지 않는 비결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썩히는 요소가 바로 나라는 의식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악령이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화를 낸다든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신경질을 낸다든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하면 피가 썩습니다. 또한 나라는 의식이 놀란다든지, 낙심을 한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하면 피가 썩는다고 이 사람이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 의식만 없애지면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면 나라는 개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인고로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고로 욕심도 나오려야 나올 수 없고, 화가 내려야 날 수가 없고, 신경질이 내려야 날 수가 없고, 낙심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욕심 중의 욕심

근심 걱정만 하면 피가 썩고 얼굴에 시커멓게 기미가 끼는데 그 기미라는 것은 썩은 피가 모세혈관에 축적된 현상입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마음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일을 되게끔 욕심 부리는 마음입니다. 욕심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이 사람이 제시하면서 말을 하는데도 이 세상에 유행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의 마귀가 이 하늘의 역사가 퍼질까봐 차단역사, 방해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면 다 하나님 되는데 자기는 안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면 남을 하나님 만들어 줘야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남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려야 출세도 성공도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영어로 “Give and Take”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줘야 받는다는 세상의 철리(哲理)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기울이고 아낌없이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도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고서 책에 “마음을 비워라.” “나를 이겨라.” 하는 말이 있고, “나를 이기면 천하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고 “나를 항상 버려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나는 구원이 없으니 나를 버려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버려라라는 말인데도 이걸 진짜 성경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던고로 지금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을 버려야 성공하지 자신을 안 버리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희생적으로 움직이는 자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희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희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도 투표를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이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승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을 가지면 생명력이 강해져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영생의 피로 이루어지고, 영생의 몸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영생의 희망을 갖게 되므로 “사람이 희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다.”는 그런 어떤 철학자의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희망이 크면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용솨솨치고, 희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해지고, 생명력이 강해지는고로 영생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영생의 희망을 가지면 핏속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했는데, 영생의 희망을 가지면 마음이 기뻐지는고로 영생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생명의 피가 되는 하나님의 피가 움직이는고로 하나님의 피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핏속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미국의 이상구 박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방송 나올 때 즉시 이 사람은 그 말을 틀린 말이라고 하면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기뻐해도 피가 썩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슬퍼해도 피가 썩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남을 미워해도 피가 썩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이제그대로 무슨 마음을 품어도 피가 썩는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1992년 1월 21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질병의 근본적 치유법은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편안하고 즐겁게 가지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사실, 말이 쉽지 요즘 세상에서 어른이 되어 사노라면 한순간이라도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고 즐거운 날이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자존심, 이기심, 증오, 분노, 욕심, 정욕... 견잡을 수 없이 비뚤어진 우리의 심성(心性). 이런 실생활을 들여다 보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병 안 걸리고 안 늙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라치면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다 한두 가지 마음에 병을 지니고 산다기 된다. 본시, 우리 인간에게 타고난 천수(天壽)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게 주어진 천수를 엄청난 과소비를 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급기야 병 걸려서 일찍 죽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서럽게도 늙고막에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고생해서 번 돈을 싸들고 이 병원 저 병원에 갔다 바치기 바쁘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

은 진짜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돈 버는데, 명예를 누리는 데, 권력을 얻는 데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한번 뿐인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통찰해 보면서 여생을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진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요즘 100세 장수시대를 넘어 120세 초장수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젊어서부터 그것도 아니라면 중년 때부터 노년과 은퇴 후의 자신의 삶을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뭐니 뭐니 해도 내 건강과 내 생명이 단연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고질적 병폐다.

어느 정도 세상을 살면서 ‘나의 건강과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철이 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미 나이 가 들고, 병이 들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통감하고 후회한다. 젊은 날에 하고 싶은 일, 즐기고 싶은 의욕이 강렬하게 일지라도, 일단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슬프고 괴로운 처지

질병의 근본적 치유



“심지어 초장수 노인들은 유전자 역시 특별하였습니다.”_ KBS 명견만리

가 되고 만다. 때문에 모든 만사를 뒤로 제쳐 놓고 제 일 번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지식과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러면서 돈과 명예 재물이 없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신적 필요와 행복의 기술을 고도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직 이것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지식과 방법)에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의 수순이 될 것이다.

예로부터 일찍이 인생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마음과 몸의 수양과 양생법(養生法)을 통해서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도(道) 닦았다. 옛사람들은 그렇게도 인간의 도덕과 윤리, 올바른 법도를 따라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칭송했었다. 돈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잘 살았던 우리 민족이었다.

지혜로운 조상들은 건강과 생명은 바로 도덕과 윤리, 올바른 인간성을 따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입버릇처럼 착하고 바르게 살라라,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 마라 등 덕(德)을 쌓고 복(福)을 지으며 살라

고 하셨다. 자신의 올바른 삶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 그 이상 숭고한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가치와 의미 추구가 삶의正道(正道)요 학문과 종교의 본질이건만, 오늘날은 그야말로 그 가치가 전도되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돈과 재물이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무시한다. 혹여 장수(長壽)와 불로장생(不老長生)을 논하면 사이비틱한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기피한다.

이런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인간성과 생명의 소중성 상실의 여파로 황금만능주의와 물질주의, 퇴폐향락주의, 한탕주의가 판치는 비정상적(非常的)인 세상이 돼버렸다. 이러한 비정상인들의 눈에는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강조하면 얼빠진 사람으로 비친다. 그들은 잘 생긴 얼굴과 멋진 몸매, 좋은 차, 큰 집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재세하는 첫째 요건으로 치켜세운다. 사실 그러한 것은 인간의 행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치와 허영일 뿐이라는 것을 모른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건강과 장수가 가장 큰 가치와 존엄이 되어야

어떤 사회에서나 기대가 결과를 좌

우한다. 부가 최고의 목표인 사회에서는 전체 사회가 돈을 버는 데에 전념할 것이며,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에게 특권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자로 치부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건강과 장수가 가장 큰 가치와 존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소망이 고매해지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인간 본연의 바른 이치로 돌아가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며, 세상이 화평하게 된다. 생명의 환희와 향연이 한껏 펼쳐져 자연치유력이 최고조로 달해 질병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질병의 근본적 치유’라는 거창한 주제로 운을 떼긴 했으나, 질병 없는 삶을 너무 어렵고 복잡한 데에서 찾지 말자.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했다.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도 평상시 생활 속 작은 마음가짐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 순간순간을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밝고 명랑한 해맑은 미소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자.*

김주호 기자